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신 수 희(인하대 석사과정) · 이 완 정(인하대 교수)

I. 연구목적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구사하는 양육 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태도 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모두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와 역시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태도를 측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해 유아가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있으나 이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연결시켜 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본 연구는 취학직전 만 5세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태도 및 유아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간 관계를 분석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인천 소재 7곳의 유아기관(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유아 93명과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6)이 개발하고, 고혜진(2005)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Schaefer(1961)의 MBRI(Materan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를 이원영(1993)이 번안하여 만든 척도를 배문주(2004)가 수정·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유아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검사는 Schaefer(1965)가 CRPBI(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를 제작하고 오성심과 이종승(1982)가 수정, 안현지(1999)가 보완한 것으로, 만5세 유아가 응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항의 내용을 유아가 이해하기 쉽게 일부 수정하고 그림으로 제작하여 아동학 전공자 2인의 타당도 검증을 거쳐 사용하였다. 유아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유아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실시하여 그림도구에 제시된 내용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치, F검증과 추후검증, Pearson's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결론

취업모가 전업모보다($F=4.15, P<.05$), 30대가 40대 이상 어머니보다($F=3.90, P<.05$)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이들은 자신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이고 통제적이며 비 자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신의 양육태도와 유아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유아가 인식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와도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는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비거부적이며 비통제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어 유아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방향은 하위변인별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느끼는 양육스트레스와 자신이 구사한다고 생각하는 양육태도는 서로 관계가 있지만, 유아는 막상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해 어머니가 지각하는 방향과는 무관하게 자기의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